

■ 금주의 증시전망

어닝시즌... 실적따라 등락 희비

<기업실적발표 시즌>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1·4분기 어닝시즌(기업 실적 발표) 영향권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증권시장=지난 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지수가 1,500선을 돌파해 안착까지 할 수 있는 지에 쏠려있다.

그러나 시장 내부적으로는 고점 행진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로 주식형펀드 환매 등의 조정압력이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고 중국의 경기과열에 따른 긴축정책이 다시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삼성전자 예상치 웃돌면 시장에 긍정적 단기급등 부담...미국 등 해외시장 변수

지적이다. 이 같은 불안 요인으로 시장의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주 증시는 본격적인 1·4분기 어닝 시즌 영향권에 진입하면서 또 다른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LG필립스LCD를 시작으로 12일 포스코, 13일 삼성전자 등의 대표 선수들이 잇따라 1·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종목별 실적 결과와 함께 1·4분기 이후 실적 전망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절정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큰 업종·종목들과 상승추세 속에 있는 종목들이 내주에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2·4분기 실적에 바탕을 둔 정보기술(IT)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상승을 이끌고 있는 조선, 철강, 기계, 화학, 운수업종 내에 있어 높은 2등주 정도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전략을 내놨다.

김성복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박스권 등락을 통해 서서히 레벨-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종목별로 선별 매매하는 전략

을 권한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코스닥은 지난 달부터 코스피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이익모멘텀이 견조해지면서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만큼 이번 주에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주 초반 추가 상승을 시도하다가 중반 이후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주 코스닥지수 변동범위가 660~675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영근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 코스닥은 주 초반에 이익을 실현한 이후 1·4분기 실적개선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현금배당 100억 이상 '상장사 부자' 12명 정몽구·정몽준회장 1·2위

상장·비상장 기업들의 2006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12명의 대주주들이 100억원대 배당 부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8일 세계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www.chaebul.com)이 대주주 및 오프가족 5천700명을 대상으로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상장·비상장 12월말 결산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현황을 집계한 결과 1억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받는 대주주는 총 783명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합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75억원으로 3년째 배당금 총액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국회의원은 205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은 작년보다 줄어든 158억원의 배당으로 3위에 올랐으며 윤석규 웅진그룹 회장(152억원), 허창수 GS홀딩스 회장(142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140억원) 등도 100억원 이상의 배당을 챙기게 됐다.



기아 세계 최초 준중형 SUV

기아자동차가 '2007 서울모터쇼'에서 선보인 세계 최초의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컨셉카 KND-4. KND-4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IT기술을 대거 적용, 차세대 SUV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7 서울모터쇼'는 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막돼 오는 15일까지 계속된다. <기아광주공장 제공>

한미 FTA시대 개막 경험국에서 배운다

칠레 시장 확대...국가 생존 해법 찾았다 캐나다 美수출 3배 꺾중 'FTA프리미엄'

<칠레·캐나다>



칠레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가의 생존방향을 찾고 있는 대표적인 'FTA 국가'로 꼽힌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통상정책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개별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발효시켰으며, 2006년 10월부터는 중국과의 FTA도 발효했다. 일본과는 최근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올해 안에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미국과는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FTA 체제가 발효된 이래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칠레는 미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큰 반발 없이 순탄하게 진행된 사례로 꼽히지만 농업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쟁력 약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됐다.

단순히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전략을 밀어붙였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력 양성도 병행했다.

농지개간 및 관개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수출 유망 농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로드쇼를 펼치는 등 중앙정부가 직접 농산물 수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89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는 'FTA프리미엄' 사례로 꼽힌다. FTA 체결 이후 미국과 상품·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크게 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걸친 수혜의 이면에는 빈부격차 확대와 대미(對美) 의존 심화, 공공서비스 위축 등의 문제도 있다.

FTA 경제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는 무역량이다. 캐나다 연방 국제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2005년 2천904억 달러로 FTA 발효 이후 17년간 3.3배로 늘었다.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수출액도 2천119억 달러로 FTA 발효 이래 2.7배로 증가했다.

캐나다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88년 44억7천만 달러에서 93년 179억1천만 달러, 2005년 1천74억 달러로 17년새 24배로 늘었다.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직접 자본투자액은 94년 NAFTA 체결 이후 10년새 2.6배(2003년 1천904억 달러)로 증가했다. 89년 이후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의 대미 수출액은 4배로 늘어난 데 비해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2배(2005년 438억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플레이션을 제제한 달러 실질가치로 따지면 대미 수출량이 NAFTA 가입국은 2.5배, 한국은 1.4배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상장CEO, 서울대 출신 ↓ ·해외 유학과 ↑

유가증권시장 법인대표 988명 분석

서울대 출신 상장사 대표이사(CEO)가 최근 5년 동안 눈의 띄게 줄어든 반면 해외 유학과 출신의 CEO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EO들의 출신 대학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석사 이상 고학력 CEO가 크게 늘었다.

8일 유가증권시장 735개 상장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이들 기업의 CEO는 988명(공통 대표이사 포함)이었다.

이들의 최종 출신학교를 보면 서울대가 177명(17.91%)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19명(12.04%), 연세대 91명(9.21%), 한양대 56명(5.67%), 성균관대 37명(3.74%), 중앙대 23명(2.33%), 부산대 19명(1.92%), 경희대 18명(1.82%) 순이었다.

특히 미국 소재 대학 출신이 17.00%(168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 소재 대학이 2.02%(20명)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92%), 고려대 18명(1.82%) 순이었다.

그 5년 전인 2002년 6월 말에 비하면 서울대 등 국내 명문대학 출신 CEO가 줄어들면서 출신대학이 다양해졌다. 당시 669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CEO 961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220명(22.87%)으로 5년 동안 이들의 비중은 4.96%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 CEO 비중을 보면 2002년 6월 말 44.9%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39.17%로 5.32% 감소했다.

외국대학 출신의 비중은 2002년 6월 말 18.61%(179명)에서 올해 3월 말 20.45%(202명)로 1.8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미국 소재 대학 출신이 17.00%(168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 소재 대학이 2.02%(20명)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은행 마감시간 3시30분으로”

금융노조 추진 논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대고객 영업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최근 각 은행노조 대표자 회의를 통해 '대고객 영업시간 단축'을 비롯한 올해 공동 임금단체협상(공동협) 안건을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26일 중앙위원회를 걸쳐 27일 사용자측 대표인 은행연합회에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FTA로 국제협상·회의 전문인력 뜸다

자동차 수입판매상·딜러도 유망

한미FTA로 업종별 전망과 인력 이동 등 산업계 전반적인 구조변경이 예상되면서 속칭 ‘뜨는 직종’에도 중장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크루트(www.incruit.com) 부설 경력개발연구소는 한미FTA 이후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을 뽑아 6일 발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국제협상·회의의 관련 전문인력이 유망할 것으로 점쳐졌다.

한미FTA 수혜업종인 자동차, 섬유,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수입판매상·딜러나 무역전문가도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해외영업직종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개척 전략을 수립할 마케팅 전문인력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분야에서는 국제노동법이나 기업인수합병,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는 유망하며 온라인 저작권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인터넷 업체를 중심으로 저작권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늘 전망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27회)

Table with columns for lottery numbers and prize amounts. Includes '2등보너스 숫자' and '당첨자 수'.

팝콘복권 (제50회)

Table with columns for lottery numbers and prize amounts. Includes '당첨금(원)' and '당첨번호'.